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68 호 The Seungni Shinmun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고조선시대 수막새에서 올드네게브 문자 발견

3천 년 전 와당에 성경 사사기 18장 내용 새겨져 있어

꽃무늬 수막새
화문 원와당
花文 圓瓦當
삼국시대 三國時代 (고구려 高句麗)

고조선 건립 당시 신전 지붕에 올드네게브 문자를 새긴 수막새로 장식

지금으로부터 3천2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방에서 사용된 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진 〈꽃무늬수막새〉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이우치실에 전시되고 있다. 〈꽃무늬수막새〉가 고구려시대의 유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고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 〈꽃무늬수막새〉는 열에 구워진 붉은 색의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에, 「열 발광 연대측정법(TL : Thermo Luminescence)」에 의해 정확한 제작 연대를 산출할 수 있겠다.

올드네게브 문자의 기원은 노아홍수 이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사용했던 원시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4천 년 전에 사용된 원시가나안 문자와 3천2백 년 전에 사용된 올드네게브 문자는 거의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올드네게브 문자를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성서 속의 유명한 인물이 되는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이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유명한 시나이 반도에 위치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이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으로 판명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라는 양식을 먹고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 널려져 있는 바위에 그들이 사용한 문자를 새겼던 것이다. 그 문자가 바로 올드네게브 문자로 확인되었다.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 올드네게브(Old Negev)어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벌여왔던 단지파 민족은 삼손 장수를 잃자마자 가나안 소라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 전의 일이다. 한반도에 도착한 단지파 민족은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 수도에 제일 먼저 신전(神殿)을 건설하면서 그 신전의 지붕은 기와로 장식하되 기왓골 끝에 보름달 모양의 원판이 달린 수막새(또는 와당)로 마감하였다.

꽃무늬수막새에 성경 사사기 18장의 내용이 새겨져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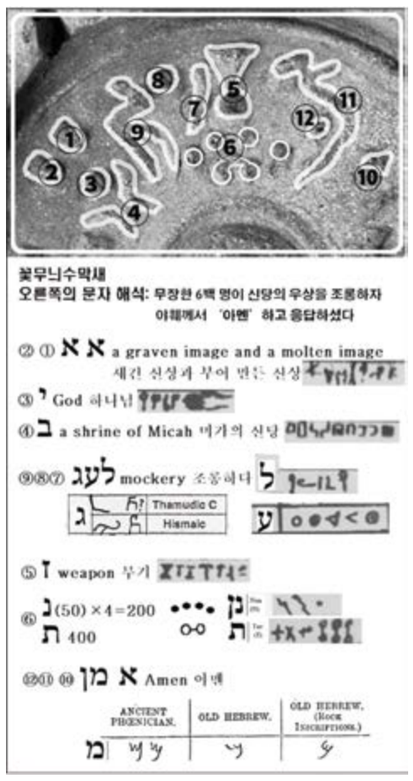
고조선 건국 당시에 제작된 수막새에 꽃무늬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기에, 〈꽃무늬수막새〉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 그 꽃무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올드네게브 문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한때 서울대 종교철학과 신사훈 교수는 이 〈꽃무늬수막새〉에 새겨진 문자가 고대 이스라엘민족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임을 직감하고, 수막새의 우측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다", 수막새의 좌측은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라고 해석하였지만 국내외의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써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꽃무늬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고조선을 건국한 선조들이 〈꽃무늬수막새〉를 통해 후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임에 분명하다. 〈꽃무늬수막새〉에 담긴 메시지의 해석은 그림으로 대신한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한 모세!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 백성의 제사장으로 함께 했다는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꽃무늬수막새〉에 새겼던 것이다. 그리고 단지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내용도 새겨져 있다.*

박태선 기자



단지파의 무장한 6백 명이 십계명을 어긴 미가 신당의 우상을 보고 조롱하자, 야훼께서 잘한다고 하심

손해뿐인 싸움 걸지도 응하지도 맙시다

어느 날 성당을 다니고 있는 막내 여동생이 요즈음 합창단의 지휘자와 파트 팀장이랑 싸움으로 합창단이 엉망이라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데 아주 피곤하다고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 합창단은 한 사람이 잘하면 동화되어 다 같이 잘하게 되던데, 그리고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높은 어르신이나 다 같이 존경하기에 싸움이 없다고 말하니 부러운 눈치였습니다.

인류는 남과의 투쟁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사냥으로 동물을 잡아 식량으로 삼았던 시대에서 살던 투쟁의 유전자가 그 마음의 밑바탕에 있으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싸움에 지기 싫어합니다. 지기 싫은 마음속에는 자신 속에 있는 억눌린 감정을 확 터트려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터 잡고 있어 싸움을 더욱 확산시킵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한 사람이 그 싸움에 응하지 않고 참으면 두 사람이 모두 '나라는 의식의 마음' '악한 마음' 에 승리하게 되고, 응하게 되면 점점 악한 마음만 커지는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선 너와 내가 없으니 싸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너와 내가 있으므로 일어나므로 점점 하나님의 세계와 멀어진다는 것이니 1분이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더 머물러 있는 체험을 늘려가야 하는 수행자들에겐 손해뿐인 큰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다면 상대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니 참고 있으면 되는 일이며, 스스로 싸움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자신을 야단치고 질책하는 일, 남과 비교하여 비관에 빠지는 일 또한 자신을 두 개의 존재로 나누는 것이므로 싸움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모두를 밑지게 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울 상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지에 거의 다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윤금옥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2〉

"이긴자가 안식일의 주인"

영원무궁토록 죽음과 고통과 괴롬이 없는 세계가 안식일이다. 즉 안식일은 영생을 가리킨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천국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6,000년 만에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6,000년간 안식일이 없었는데 죄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이다. 저들은 안식일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라야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안식일의 주인공이요, 마귀를 섬멸하고 영생을 이룰 자도 이긴자다. 바로 영생의 씨앗이 이긴자다. 그래서 영모님께서 이긴자를 내 소유로 삼아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건 다시보기

영생교를 시한부종말론으로 매도한 탁명환

탁명환(卓明煥, 전라북도 정읍군, 1937. 7.8~1994. 2.18)은 누구인가? 그를 소개한 위키백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신흥종교 연구가, 이단 사이비종교 연구가. 기독교계열의 이단 연구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를 지속으로 비판하여 소송, 테러, 살해 협박을 받았고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대성교회 광신자 임홍천에게 살해당하였다. 임씨는 1994년 1월에 쓴 목사 박윤식을 비판하는 글을 보고 증오감이 깊어져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다.(위키백과 탁명환 참조)

살아 영생론은 시한부종말론과 양립불가

탁씨는 월간지 현대종교를 발행하여 자신이 연구한 소위 기독교 이단 종교단체의 교리 및 조직 등의 내용을 그곳에 게재하였고 관련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이 백 몇십 건에 달했다. 탁씨는 자신의 잡지가 운영이 어려웠는지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93년 청량리 맘모스 호텔에서 영생교 조희성 총재에게 3억을 요구하였고, 조 총재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영생교 승리제단을 이탈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승리제단을 시한부종말론자로 매도하기 시작하였다고 조 총재는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탁명환은 더 나아가 승리제단을 탈퇴한 신도들 중에서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을 찾아내 조희성 총재가 그들을 살해 암매장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족들을 부추겨 관계당국에 진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종자들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 소위 '실종자 피해 대책 위원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끈질기게 괴롭혔고, 검찰에 진정을 넣었고, 매스컴에 허위정보를 주고 보도를 부추겼으며, 영생교 승리제단을 수사하도록 전방위로 압박하였다.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동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공중으로 끌어 올림을 받는다는 소위 휴거론이 극성을 부릴 때였다. 많은 기독교인과 종교인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그날 과연 나타나서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휴거를 믿는 신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탁씨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생교를 시한부종말론으로 매도한 것이다. 시한부종말론은 특정한 시점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이므로 그야말로 사이비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그 프레임에 영생교 승리제단을 갖다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힘센 사람 편에 선 법원

영생교 승리제단은 인간이 죽어서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이므로 그 교리 자체가 시한부종말론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아무리 영생교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한번 씌워진 그 누명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수차례 본보를 통해 시한부종말론은 잘못된 교리라고 발표를 해도 그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며 사기죄로 처벌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분위기가 휴거론자들에 의해 종교적 물의가 많은 때였으므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힘 없는 신흥종교를 사기죄로 판결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그걸 벗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발행인 김종만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 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교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하고 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승리절 예배 안내

일시: 10월 15일 오후 1시
장소: 본부제단 예배실

승리절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승리절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경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조희성 구세주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